



에경산업(주)

환경친화적 포장제품 개발에 주력

궁극적으로는 화장품 전문메이커로 이미지 강화

40여년 전통을 긍지로 삼아

에경그룹의 모태로서 1954년 설립된 에경유지공업주식회사는 1985년 에경산업(주) 설립후 기존의 세제,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 사업을 이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에경산업은 40여년의 전통이라는 긍지를 바탕으로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화장품

사업에 적극 참여할 목표로 충남 청양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화장품 공장 라인을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제품생산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종합 화장품 전문메이커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1975년 영등포유지공장이 준공되어 첫 가동된 이래 같은해 7월 충남대전에 위치한 대전 제1공업단지에서 동업계의 관심속에 국내 최신

식의 합성세제 공장을 준공한 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원활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94년 완공된 충남 청양공장은 국내 최초의 최신식 전자동 설비를 완비한 공장으로서 특히 액체세제공장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얻을수 있도록 설계됐다.

에경그룹은 에경유화, 에경화학, 에경셀(주), 에경공업(주), 에경소재(주) 등의 계열사를 비롯하여 합성수지를 원료로 한 생활편의용품 생산전문업체인 성우산업(주), 지류가공업체 경신산업, 일본 미쓰비시가스화학의 자회사인 JSP와 합작한 코스파(주)가 있는데 에경코스파는 완충성 등 우수한 물성을 지닌 P-BLOCK제품을 생



▲ 구로동에 위치한 에경산업 주식회사 전경

산하여 정밀제품의 포장에서부터 BUMPER CORE재 등을 생산하여 그 성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1985년 연구소 설립

1985년 7월에 설립되어 현재 연구소장을 주축으로 50여명의 전문연구원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중앙연구소는 세제연구부, 개인용품연구부, 화장품연구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중앙연구소는 정부기관인 공업진흥청, 화학시험연구소 등으로부터 88년 4월, 89년 5월에 분말 충전제와 액상합성세제, 섬유유연제에 대한 품질보증 Q마크허가를 획득했고 88년 10월과 89년 6월에는 주방용 및 의류용 합성세제, 글리세린 1, 2종에 대한 한국공업규격 KS표시허가를 획득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으로 신뢰받게 됐다.

애경은 청양공장의 완공으로 주요생산품인 주방용 세탁세제와 화장품류를 비롯하여 피부

보호용품, 개인위생용품 등 사업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연구방향도 환경문제와 관련, 저공해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어 이를 위해 연차적으로 기술투자비용의 제고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신규사업분야별 기술정립에 주력할 것이다.

포장개발부 서울로 이전

중앙연구소내에 소속돼 있던 포장연구부가 지난 95년 1월1일부터 서울본사로 이전, 이청원 부장 이하 10명으로 구성되어 포장개발파트와 금형개발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금형개발팀은 디자이너로 하여금 결정된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제품 설계를 담당하고 이에 완료된 것을 포장개발팀에서 재질 선택이나 라인상의 트러블 문제 등을 고려하여 포장을 완성시키고 있다.

“애경의 제품연구는 대전 중앙연구소에서, 포장은 저희 포장개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로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업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정보를 입수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서는 고분자를 전공한 직원이 30%, 나머지는 화공이나 공업화학을 전공한 고급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이청원 부장은 공업고등학교에서 화공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무역을 전공한 후 80년에 애경에 입사하여 줄곧 포장업무를 담당해 왔다.



▲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경산업 포장개발부앞줄 가운데가 이청원 부장

패키지디자이너와 포장개발자 간에 때로는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나 애경의 경우 충분한 토론으로 풀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실제 제품으로 재현해 보기도 하고 생산라인에서 테스트를 하며 서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어느사보다도 중시하는 애경은 외국잡지를 다량 확보하여 최신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설비나 라인에 대한 이해는 전시회나 현장답습을 통해 쌓고 정기적으로 내부에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부서 구성원 스스로가 포장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고 포장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대전에서 서울로 이전하며 한명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올라왔습니다”라고 입을 모으는 부서원들 대부분이 포장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실력자들이기도 하다.

환경제품 개발로 업계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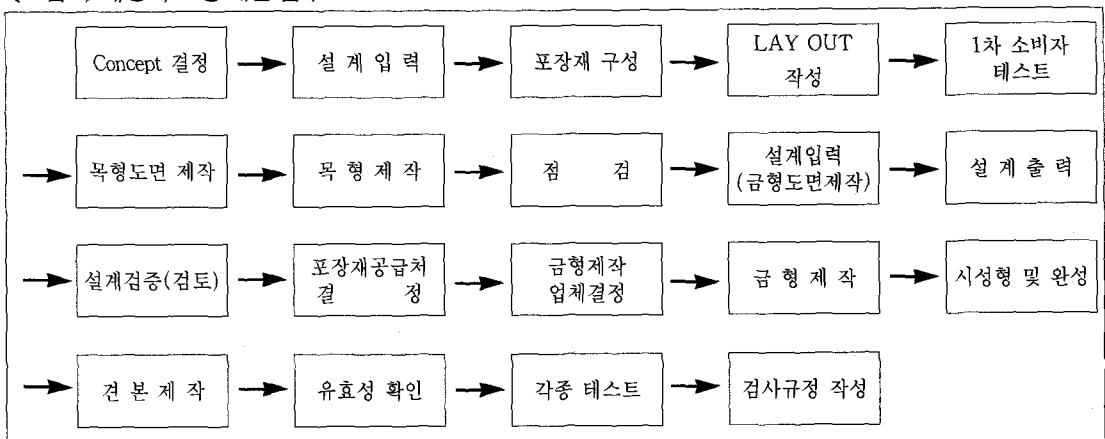
애경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포인트를

두고 생산하고 있는데 화장품은 외향 및 편리성을 중시하고 세제는 생산성 및 기능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적인 경향이 환경을 배제한 포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PVC라미네이팅을 배제하는 시도를 했으며 파우치제품을 적용시키거나 화장품 케이스를 단일재질 처리하는 등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애경제품 중 세계의 경우 리필제품이 정착되고 있는 시점이며 최근에는 섬유유연제인 ‘마무리’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반응이 더욱 높아 올해 매일경제신문사의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데 일조했다. 또한 리사이클의 합리화를 위해 삼푸류의 경우 과거에는 라벨과 용기의 재질이 다른 것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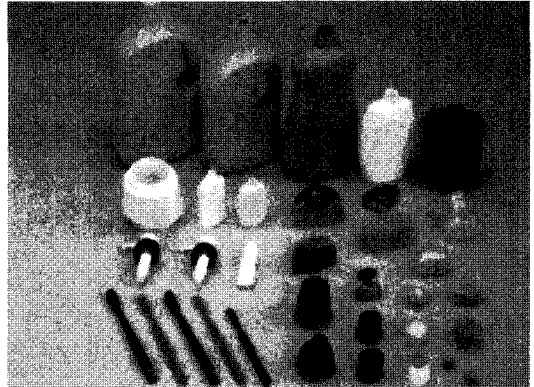
더욱이 애경의 제품은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불때 편리하고 견고함을 기본으로 한 포장이어야 하므로 최근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고려한 기술개발 및 포장방법의 개선이 활발하

[그림 1] 애경의 포장 개발 업무





▲ 애경은 포장개발시 환경을 고려하여 리필제품을 대폭 적용시키고 있다



▲ 애경그룹 계열사인 성우산업에서 직접 사출포장제품을 생산하여 애경제품에 적용시키고 있다

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도 포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는 반면 발전없이 그저 싸개 개념에 머물러 두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향후 좀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포장을 지향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도 부서장이라 하여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후배들과 각종 테스트도 직접하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는등 실무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이 부장은 단순히 포장재 연구개발부서가 아닌 포장전과정, 즉 포장재에서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단계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늘 긴장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제 서울로 이전하고 정착단계인 애경 포장개발부는 앞으로 신입사원의 비율을 현재 30~40%로 점차 줄여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애경제품 포장의 질적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대기업에서조차도 포장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많은 편이다. 한쪽에서는 빠르게 발전되고 개선해가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곧 퇴보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베스트포장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애경산업(주)을 탐방하며 포장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흐뭇한 마음으로 일정을 마쳤다. ☐

이선하기자

포장산업 최고의 전문지 월간『포장계』
업체 탐방 및 신제품소개 광고문의,
구독신청은 편집실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 (02)780-9782